

## 이강소의 생각

19세기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은 유럽에서 산업혁명을 계기로 급속히 발전한 근대문명이라는 파도에 휩쓸렸다. 불행하게도 동아시아만의 모든 전통들이 무너져 내렸다. 그 전통 속에는 비단 개선되어야 할 것들도 부지기수 있었겠지만, 좋은 것들은 더 많았다고 진단하는 학자들이 많다. 우리의 전통을 알아간 서구가 무엇인지 들여다보는 것은 나의 예술을 이해하는 심원적 인식의 틀이 되기에 설명을 펼쳐보겠다.

르네 데카르트(Rene Descartes, 1590~1650)는 인식주관이 외부세계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을 설파했다. 철학사 중 가장 위대한 명제라고 손꼽히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서구의 지성사는 '자아(self)'를 중시하고 '외부세계(outer world)'를 의심하는 역사였다. 반면 동양의 전통은 '외부세계'는 원만구족(圓滿具足)한 반면 나, 즉 자아(self)가 외물에 이끌리기 쉬운 바, 스스로 청정한 본연지성(本然之性)을 추구하고 수양해야 한다고 가르쳐왔다. 서구는 자아가 지닌 이성만이 믿을 수 있는 본원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외부세계를 개량하고 조작하는 역사로 발전해왔다. 자연과학이 이 문명에서 나온 것은 필연적이다. 반면 우리의 전통은 외부세계는 이미 청정하고 청초한 것이다. 따라서 내면의 인욕(人欲)을 떨치고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한 천성(天性)을 따르는 도덕형이상학을 발전시켰다.

또한 아이작 뉴턴(Isaac Newton, 1642~1727)이 정초한 합리주의적 근대과학은 기계주의적 우주관을 형성시켰다. 외부세계는 수학의 방정식 모델로 포섭할 수 있다는 믿음이 바로 뉴턴의 세계관이다. 데카르트, 그리고 뉴턴이 기초를 잡은 합리주의적 철학과 세계관의 비약적인 전개는 4세기에 걸쳐 인류에게 새로운 사고방식을 요구했다. 이 기간을 우리는 모더니티의 시대라고 부른다. 그리고 우리 역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로 외부세계를 파악해야 한다는, 이들 모더니스트들의 주장에 동조하게 되었다. 모더니티의 토대는 나라는 주체와 대상이란 객체를 분리시키는 일에서 강화된다. 이러한 분리 방법은 쉬운 일상에서부터 모호한 영역조차 합리적이며 분석적인 해석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믿었다. 세계를 마치 시계부속처럼 짜맞춰 보려는 생각, 이러한 사고패턴은 근대의 독특한 기계론적인 사고이다. 그것이 편리할 수는 있으나 진리 그 자체라고 믿은 것은 우리가 두고두고 음미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여하간 이러한 사고는 거침없이 동아시아의 사람들의 뇌리에 관습화되고 내면화되었다. 세계를 인식하는 관습이 자신의 두뇌능력을 너무 신뢰한 나머지 3차원의 공간과 시간이라는 차원을 분리시켰다. 3+1의 차원이 세계에 존재하는가? 우리는 시공간의 장소와 시간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관습에 젖어 들었다. 수학의 방정식으로 시공간을 시간, 그리고 공간을 나누고 쪼개어 분석한 것이다. 우주(宇宙)라는 한자어를 들여다보자. 우(宇)는 공간이며 주(宙)는 시간이다. 우주는 그냥 우주이지 우와 주의 나누어짐이 아니다. 따라서 시공간은 분리될 수 없다. 오로지 지금 이 시간은 여기에 내가 있는 현재의 지점이다. 즉 4차원의 시공

간에서만 만물의 작용과 사람 간의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의 관습도 자연스럽게 서구의 인식 방법을 따랐다. 그들의 기세등등한 자연과학의 위력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모든 문명은 선진화된 서구문명을 지속적으로 뒤따르는 형국이 되었다. 서구 자연과학은 순수한 차원의 인식이자 지적 열망일지는 몰라도, 일단 현실에 응용이 되면 전쟁무기가 되고 사람들의 영혼에 족쇄를 채우는 이념의 무기가 된다. 우리만 현실에서 뒤쳐질 수 없다. 그래서 서구를 좇아 따른 것이다. 이제 미술을 본격적으로 말해보자. 물론 미술의 영역에 있어서도 근대 이후 서구의 미술형식을 뛰어 넘거나, 앞장서서 영향을 발휘하는 제 3세계의 예시를 나 역시 찾을 수 없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일단 미술이라는 영역은 유혹기제이자 마음의 산물이지 객관적 전거는 없다는 측면만은 잊어서는 안 된다. 미술은 실증주의가 아니라 인간 최고의 가치체계이다. 미술에서 동서의 우열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계속 실수를 범했다.

지난 20세기는 근대의 관습과 현대라는 새로운 사고로의 변화가 복잡하게 착종(錯綜)되는 시대였다. 단단하고 치밀한 기반을 다져왔던 근대과학이 현대과학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놀라운 발견들도 속속들이 일어날 때, 그로 인해서 애초에 머금었던 선의의 빛도 잃게 되었다. 세계의 법칙을 모델로 정리해왔던 인류는 새로운 사고로 전환해야 함에도 여전히 자연정복의 관습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연의 황폐해짐을 보자. 생태의 붕괴를 보자. 인간성의 파괴를 보자. 우리는 과연 예전에 비해서 행복하다고 볼 수 있는가? 행복하다고 믿고 진보했다고 믿더라도 예전보다 도덕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도덕적이라고 말해도 반성하고 성찰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피카소(Pablo Picasso, 1881~1973)가 '아비뇰의 처녀들'을 그렸던 해가 1907년이었다. 비슷한 시기인 1905년에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 1879~1955)은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다. 이 이론은 시간과 공간은 분리될 수 없다는 진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 그리고 1915년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여 상대적으로 중력이 무거운 공간과 가벼운 공간의 시간은 흐름이 빠르거나 느릴 수도 있다는 사실까지 증명했다. 어려운 과학이론이라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로써 근대에 통용되었던, 시간은 객관적이라는 사실, 즉 뉴턴의 동시성의 이론은 오류라는 결론이 났다.

닐스 보어(Niels Bohr, 1885~1962)는 1913년에 원자이론을 확립했다. 또한 양자역학의 선구가 되어 미시과학을 창시했다. 보어의 후예 하이젠베르크(Werner Karl Heisenberg, 1901~1976)는 양자역학의 해석을 정립하면서 '불확정성의 원리'를 발표했다. 전자와 같은 입자를 관찰했는데, 그것의 본질은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기에 그 움직임을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 사람을 더 분석하면 티슈, 즉 조직이다. 조직에서 더 나아가 미시적으로 분석하면 분자이다. 더욱 파고들어 분석하면 분자는 원자가 된다. 원자는 다시 미립자가 된다. 미립자를 더 분석하면 파장이 된다. 그런데 이 파장은 객관적으로 정의할 수도 없고 위치를 파악할 수도 없다. 사실 원자를 관찰자가 관찰하려면 원자는 관찰자의 의도를 읽고 숨어버리거나 방향을 바꾼다. 현

대물리학은, 물질이 우리의 생각을 읽는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벨(John Stewart Bell, 1928~1990)은 1964년에 '벨의 정리'를 발표한다. "우주는 부분으로 분리될 수 없는 전체로서 존재하는 것이며, 여기 일어나는 우리의 사건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다른 사건들의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밝혀 주었다." <참고: The Turning Point, Fritjof Capra 저, 구윤서, 이성범 역, 범양사>

이렇듯 계속되는 현대물리학의 수없이 뛰어난 실험들은 급기야 2015년 5월 27일 오스트레일리아 국립 과학연구소에서는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는 순간, 눈앞의 세계가 나타난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한다. 말하자면 우리가 인식하는 순간, 그 순간의 바로 그 이전까지 세계는 불확실한 상태라는 것이다. 그저 놀라울 뿐이고, 현대물리학의 궁극적인 이 실험이 오히려 우리의 경전인 『중용(中庸)』에서 견지하는 인간의 천지참여의 소당연(所當然)의 논의라든지 유식불교, 그리고 노장의 사상에서 설파했던 논의들과 매우 잘 들어맞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나는 감탄을 금할 수가 없다.

아마도 생명체들은 각기 다른 시각과 감각체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도 세계를 인식하는 경험체계에 따라 감각의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생명체들을 포함한 만물은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밝혀내지 못하는 입자와 파동의 생성과 소멸, 변화무쌍한 에너지의 펼침과 닫음에 불과할 것이다. 『주역』에서 말하는 '흡(翕)'과 '벽(闢)'이 바로 그것이다. 생명체들이 가진 극히 제한적인 감각들이 인식하는 세계는 각양각색일 것이다. 달은 하나이지만 강물에 비춘 달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그 모습이 각기 다른 이치와 같다.

우주를 거시적 차원에서 바라보자. 우주 너머에는 무엇이 존재하는지 우리는 여전히 모른다. 그리고 평행우주론으로 바라보자. 그 수많은 우주들의 바깥에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미시적으로 봐도 초끈 이론, 막 이론으로도 우주의 바깥이 무엇인지 모른다. 이들 이론으로는 우주가 11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지만, 이는 우리의 인식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차원에 존재한다. 우리는 근대에 3(공간)+1(시간)차원밖에 인식하지 못한다. 나방이라는 벌레가 세계를 열고 파장으로밖에 읽지 못하듯이, 우리도 공간과 시간을 방정식이라는 모델에 가두어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아인슈타인 이래 겨우 4(시공간)+1(메타 인식)차원으로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더구나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인류의 수도 겨우 수십 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B.C.5세기 무렵에 그리스의 플라톤(Platon, B.C.427~B.C.347)은 눈에 보이는 현상계는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오로지 인간은 이데아를 상기하는 것에서 진정한 인식에 이르며, 이때 영혼도 불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놀랍도록 아름다운 철학이 바로 그 유명한 '동굴의 비유'이다. 그리고 석가(釋迦, Siddhartha, B.C.563? ~B.C.43?)로부터 비롯된 불교의 '공(空)' 사상, 노자(老子, 출생~사망 미상)의 '도(道)'사상 등은 빛나는 지혜와 깊은 수련에 의한 통찰이 빚어낸 결과이다. 나는 이들의 예지가 저 우주 밖의 초연한 경지로 우리를 안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느낀다.

특히 석가와 노자가 안내하는 '공'과 '도', 이 '무'도 '유'도 아닌 에너지의 어떤 영역,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깨달음이야말로 새로운 차원, 이른바 '메타 인식' 으로의 비상을 의미할 것이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은 방대한 정보의 축적으로 인간을 능가하는 분석을 제공하지만, 그 프로세스는 직선적인 한 방향으로 흐르는 시간의 추이만을 따른다. 반면 인간은 과거와 현재, 혹은 미래까지도 시공간을 뛰어넘는 인식이다. 따라서 인공지능과는 비교를 불허하는 차원에서 스스로 갈마들며 느끼고 사유한다.

플라톤이나 석가, 노자 등 많은 현인들이 세계를 유기적이며 관계적으로 인식하면서 깨달은 시기를 제1 지혜의 시대라고 한다. 데카르트, 뉴턴 등 근대를 연 천재들의 등장 시기를 제2 지혜의 시대라고 한다. 아인슈타인, 보어, 벨 등의 현대 물리학의 총아들이 새롭게 문을 연 시기를 제3 지혜의 시대라고 한다. 이렇게 구분하는 사고방식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우리를 포함한 우주는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끊임없는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면서 유지된다. 그런데 이 우주가 사실은 환영일 뿐이라는 현대과학의 증명들은, 근대적인 사고로부터 방향을 전환시켜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할 시기에 있다고, 강변해주고 있다. 그래서 과학 철학자들은 이 시대를 '문명의 대전환의 시기'라고 지적한다.

이 전환의 시대에 다행히도 인류는 제1 지혜 시기에 깨달았던 5차원의 유기적인 사고와 수련의 유산을 여전히 보전해서 참고할 수 있다. 특히 '공'사상이나 '도'사상은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기에 앞으로 동아시아의 사상은 재조명이 될 것이며, 인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짜는 추뉴(樞紐)가 될 수도 있다. 이 사상들은 각기 분리되어 서로의 주장을 독단적으로 설파한 종교가 아니다. 그것은 함께 융화되어 발현된 사상으로서 제1 지혜의 시기 이전부터 배태되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성장한 참된 사상들이다.

그런데 만물이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면서 유전하고 있는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공허한 파장에 불과한 것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계의 참된 가르침들은 삶을 긍정하고 반드시 우리가 서로를 도우며 잘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선한 것을 추구하고 서로를 돕고 만물의 화육(化育)에 동참할 때 우주 그 자체도 기쁨으로 충만하여 환희의 화염을 펼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가보자.

내가 살고 있는 한국은 비교적 민족의 변화가 적었다. 동시에 동아시아의 정신사를 일목요연하게 발전시키면서 전통을 이어왔다. 근대에 이르러 서구에 비해 현저하게 후진적인 물질적 조건 속에서도 정신적인 전통의 불빛만큼은 꺼드리지 않고 살려왔다.

샤머니즘이라는 말이 있다. 샤머니즘이란 한마디로 무속신앙이다. 초자연적인 존재와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영매인 무당이 초자연적인 존재의 메시지와 의도를 읽어서 인간에게 전달해주는 제의(祭儀)이다. 우리는 고대로부터 전수된 샤머니즘을 지금도 신앙의 형태로 유지하고 있다. 더구나

시대가 흐르면서 유교, 불교, 도교 등 유입된 외래 사상이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독자적으로 토착화되었다.

공자(孔子, B.C.551~B.C.479)는 제1 지혜의 시대의 대표적인 성인이다. 공자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인(仁)'의 가르침을 주었다. 공자는 사람들이 삶을 유기적이고 조화롭게 운영하도록 인도했다. 공자의 사상을 이어받은 맹자(孟子, B.C.372? ~B.C.289?) 역시 공자의 인의예지 사상을 4단으로 정리하여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 사람에게 없으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고 설파했다. 맹자 이후 오랜 기간을 지나, 주희(朱子, 1130~1200)는 공맹사상을 우주론적, 인간론적 형이상학으로 발전시켜 이른바 '주자학(성리학)'을 집대성했다. 그의 이기이원론과 태극도설은 우주만물이 이(理)와 기(氣)로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또 '리'와 '기'가 갈마들면서 우주와 만물을 생멸시키고 운영시키는 우주원리를 태극도설(太極圖說)을 예시로 들면서 명쾌하게 설명했다.

유불도 사상이 서로 융화되어서 일상의 현실에 뚜렷이 반영한 예로써 우리는 '화랑도(576년에 나라의 인재를 선정하기 위한 조직)'를 손꼽을 수 있다. 화랑도는 자연을 즐기며 심신을 수양하고 제사를 받드는가 하면 향가를 짓기도 하였다. 신라의 화랑들은 풍류정신으로 시를 짓고, 임금은 임금답고 아비는 아비다워야 한다는 공자의 정명(正名)의 정신을 실현했다. 거기뿐이겠는가? 석가세존의 생명사랑을 존중했다. 이들의 놀라운 세계관은 분열된 이 땅을 통일의 낙토로 일구었다.

고려시대에는 불교를 국시(國是)로 삼았다. 이 국시의 정신은 거란, 여진, 몽골의 침략을 견디게 했다. 그렇게 14세기에 이르기까지 불교가 오랜 기간 대세를 이루어 왔지만, 정몽주(鄭夢周, 1337~1392), 정도전(鄭道傳, 1342~1398)에 의해 성리학(性理學)을 국시(國是)로 삼은 이후 우리나라는 성리학적 이상주의의 나라(물론 불교, 도교사상을 함께 하면서)로 변모했고, 그 영향은 지금까지도 남아있다.

퇴계 이황(退溪 李滉, 1501~1570)은 동아시아의 대사상가이다. 주자 이후 중국에서는 성리학이 쇠약해졌다. 명나라에 와서는 왕양명의 양명학이 대세를 이루었다. 퇴계 이황은 성리학의 수맥을 우리나라에 대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창조적으로 발전시켰다. 성리학은 조선에서 꽃을 피웠다. 주자의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에서 퇴계는 리(理)를 중요시하는 주리론(主理論)을 탄생시켰다. 반면 퇴계 이황과 더불어 우리나라 성리학의 양대 종주라고 할 수 있는 율곡 이이(栗谷 李珣, 1536~1584)는 기(氣)를 중시하는 주기론(主氣論)을 완성했다.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1762~1836)은 해체될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다. 유교의 이상적인 왕도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대한 개혁사상을 전개했다. 이처럼 긴 여정을 겪은 성리학은 세계가 유기적인 구조로 관련되어 있고,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인간이 만물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온 학문이다. 동시에 수련과 마음공부를 통해서 도덕적 이상을 구현하려 했던 실천론이었다.

이제 근대를 넘어 현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생각해보자. 서구의 근대적 인식체계를 뛰어넘을 대안

은, 앞에서 보았듯이 동아시아 현인들의 가르침과 메타인식의 지혜로운 안내를 절실히 따랐던 장구한 전통의 여정을 음미하는 가운데, 활연(豁然)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 자신이 다시 제 5차원의 인식체계를 수립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렇듯 전통과 미래를 생각하는 가운데 미술이라는 영역을 다시 성찰해보려고 한다.

우리나라의 현대미술의 생성과정의 대략 이렇다. 대부분의 미술인들은 근대의 서구교육을 학습하면서 어려서부터 사실파, 인상파, 야수파, 입체파, 초현실파, 추상파, 추상표현파, 팝아트 등을 차용하며 성장했다. 나 또한 이러한 환경의 늪을 벗어날 수 없었다. 이러한 고뇌의 노력들은 결과적으로 허망한 것에 불과했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의 내면 깊숙이 깃들어있고 내재된 전통적인 인자들을 서구의 교육은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1960년대에 서구 미술계에서 활발하게 진행된 이벤트 혹은 해프닝 같은 즉각적이고도 프로세스적인 형식들은 나에게 미술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주었다. 이러한 즉각적이고도 우연적, 프로세스적인 형식은 비록 미술의 형식은 아니지만, 고대로부터 동아시아의 일상에서도 전통적으로 있었던 것이다.

바로 '풍류도' 이다. 그 예로서 '유상곡수(流觴曲水)'라는 것을 들 수 있다. '유상곡수'란 숲 속 맑은 개울의 물줄기를 끌어다가 술잔을 띄워 보낼 수 있는 물굽이를 만들고 차례로 앉아서 물길 따라 술잔을 띄워 보내는 동안 즉흥적으로 시를 짓고 음송하는 물놀이이다. 물론 음악도 자연스럽게 함께했다. 중국의 서성(書聖)이라 불리는 왕희지(王羲之, 307~365)의 그 유명한 '난정연회(蘭亭宴會)' 역시 이벤트의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후 이런 형식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물굽이를 실내로 끌어드려 발전되기도 했다. 그 증거인 유물들이 지금도 여럿 남아 있다. 한국의 포석정(鮑石亭, 7세기 이전에 만들어졌던 것으로 추정)도 일레이고, 일본 큐수 시마즈의 선암원에서 지금도 해마다 '곡수지연(曲水之宴)'을 연다고 한다.

'화랑도(花郎徒)'는 남녀가 서로 도의를 닦고, 음악으로 서로 즐겁게 하며, 명산과 대천을 찾아 다니며 수양했던 단체였다. 그래서 국선도(國仙徒), 풍월도(風月徒), 풍류도(風流徒)라고도 했다. '유상곡수'나 '화랑도' 같은 풍류도(風流道)도 시대에 따라 모습은 변모했지만 살아남았다. 우리 근세에 음악과 더불어 시를 짓고 암송하며 음주 모임이 여전히 성행했으며, '남사당(男寺黨, 유랑 연예인 집단)' 놀이 등도 맥을 이었다. 한국동란 이후 나의 조부님이 낙향하셔서 함께 계실 때 술을 못하심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정기적으로 이러한 작시(作詩)와 낭송의 풍류를 즐기셔서, 훗날 만나게 된 이벤트라는 장르가 내게는 아주 익숙한 매체였다.

그래서인지 나는 1970년대 초부터 '갈대', '선술집(소멸)', '닭의 퍼포먼스' 등 세간에 낯설던 이벤트라는 장르가 오히려 몸에 맞는 옷처럼 아주 편하고도 자연스러웠다. 모험과 모색은 즐거웠다.

당시 나는 의문을 던졌다. 일상사를 과연 일인칭과 이인칭, 삼인칭으로 분별해서 명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이었다. 그것은 실제로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사는 순간의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사실 그렇게 축적한 기억조차도 불확실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순간순간 세계를 의식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제한적이란 사실도 깨달았다. 이 세상은 완전하게 파악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또한 있을 수 없는 그 무엇이 사실은 존재한다. 우리가 모를 뿐이다.

그래서 이제까지 해왔던 전통적인 평면작업, 입체작업들도 토대부터 다시 검증해봐야 겠다고 생각했다. 1975년이었던. 그 무렵 시작했던 작업들을 4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 수행해오고 있다. 동양의 지혜와 현대물리학의 혁신들이 깨우쳐준 진리로부터 나는 나의 인생과 섭용귀체(攝用歸體)로서 하나의 몸인 나의 작업을 생각하는 것이다.

평면의 캔버스나 종이들, 그리고 입체작업들은 단순히 대상이거나 물질로써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으로 나와 더불어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속도로 소용돌이치면서 서로 구조를 이루고 생멸하는 에너지로 내 앞에 펼쳐지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마음속으로 언제나 상기시킨다. 그래서 그 작업들에서 드러나는 현상들은 내가 마주하고 있는 세계를 단순히 표현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절제된 나, 참 나, 우리들 누구나 공통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참 나로서 소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에 대해 답하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참 나란 나라는 에고(Ego)로서가 아니라, 좀 더 근원적인 인간으로서의 나를 의미한다. 우리에게는 누구일지라도 모두 본연지성(本然之性)과 기질지성(氣質之性)이 구유되어 있다. 본연지성은 하늘이 부여해준 천심(天心)이요, 공심(公心)이자 도심(道心)이다. 그것이 참된 나이다. 기질지성은 욕심(欲心)이요 사심(私心)이자 인심(人心)이다. 천심을 지키고 인심을 경계하는 공부야 말로 지혜의 요결이다. 이것은 요 임금이 순 임금에게 전해준 도리이며 퇴계 선생님이 지향했던 마음공부의 토대이기도 하다.

성리학의 의미로 더욱 심화시키자면 사단칠정(四端七情) 가운데 사단이야 말로 참된 자아라고 말하고 싶다. 사단은 사람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마음, 즉 선천적이며 도덕적 능력이다. 측은지심(惻隱之心)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타고난 착한 마음이다. 수오지심(羞惡之心)은 자신의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옳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이다. 사양지심(辭讓之心)은 겸손하여 남에게 양보하는 마음을 가리킨다. 시비지심(是非之心)은 잘잘못을 분별하여 가리는 마음이다. 사단은 주로 사상(鄒魯思想)의 정점이다. 그런데 칠정은 인간의 본성이 사물을 접하면서 표현되는 인간의 자연적인 감정을 말한다. 희(喜, 기쁨), 노(怒, 노여움), 애(哀, 슬픔), 구(懼, 두려움), 애(愛, 사랑), 오(惡, 미움), 욕(欲, 욕망)이 칠정이다. 에고가 도출시키는 영역이다. 퇴계 선생님이 의하면 사단은 리의 세계이다. 칠정은 기의 세계이다.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사단을 잘 닦아서 만물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나는 그 마음을 다잡아 견지한다.

서구 회화는 칠정을 긍정하는 길을 걸어왔다. 반면 동아시아 전통회화의 감상 포인트는 서구의 것과 근본을 달리 한다. 우리는 회화에서 작가의 칠정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다. 오랜 수련과 각고

의 수행, 이런 노력에서 비롯되는 품격과 인성의 생동하는 기운을 회화로부터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회화나 서예들 가운데 이른바 신품(神品)이라고 표현되는 작업들에서 나는 깊은 감흥에 빠지게 된다. 이 감흥은 대가들의 인격을 내가 직접적으로 교감하는 실존이기 때문에 진실한 것이다. 아마도 이들 작업들 속에 앞에서 말했던 핵심가치인 메타인식이 구체화되어 녹아있을 것이다.

나의 작업들에서 드러나는 현상들은 칠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보다 더 근원적인 영역을 현시(顯示)하려는 의지이다. 견줘보자면 사단이다. 또 '사람다운 사람'의 품격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절실함이 내 작품을 감상하는 모든 사람들과 소통하길 바라는 희망을 저버린 적이 없다. 여기서 나의 예술세계를 사단이나 인의예지에 견줄이 적당한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오랜 작업의 수행 가운데서 순간적으로나마 메타인식의 경지가 구현되어 나와 관객이 체험할 수 있다면, 이것은 살면서 얻는 최상의 경험 중 하나일 것이다. 언제나 이 경험들이 함께 공유되기를 소원한다.

이 소박한 바람은 나의 평면에서도, 입체작업에서도, 사진작업에서도 늘 함께 자리한다.

평면 위에서 펼쳐지는 붓의 제스처는 의도 없이 즉각적인 행위로 드러난다. 그 행위의 증험이 필획이다. 이에 반해 무위적 필획에 대응하는 단순한 이미지들도 있다. 이미지들은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린다. 그 순간 캔버스의 평면은 규정할 수 없는 이미지들의 바다로 변화한다. 그러나 나는 개념적인 페인팅의 방법론을 거부한다. 나의 회화는 서구에서 말하는 개념 회화가 아니다. 나는 내가 작업한 결과가 보는 이를 메타인식의 세계로 친밀하게 안내해줄 수 있는가에 더욱 관심이 간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작업과 일상생활의 간단(間斷) 없는 수련이 요구된다. 나는 이 요구에 기꺼이 따를 뿐이다.

1980년 이후 지금까지 던져 온 흙 작업 또한 마찬가지다. 손에 들기 알맞은 무게의 흙덩이를 무작위로 던져서 그 결과를 보고 교감하는 작업이다. 이른바 칠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거나 조작하는 것이 아니다. 예상되는 결과와 예상 밖의 결과를 전일하게 받아들이면서 던질 뿐이다. 결과는 마음과 몸, 흙, 환경에 의해 다른 양상으로 드러난다. 나는 던지기의 오랜 수련으로 맑은 기운을 얻었다. 이 기운이 모두와 함께 공유되기를 기대한다.

나는 이미 1977년에 비디오 영상작업을 시도해보았다. 몇 번의 비디오 작업 전시도 있었다. 그래서 매체예술이 낯설지가 않다. 그런데 스틸 사진을 새로운 작업으로 관심을 가진 것은 최근 2000년대 초반이다. 사진기가 펼치는 세계는 오감으로 보는 세계와 판이하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사진이 보여주는 특별한 세계를 보고 싶었다. 그래서 사진작업을 시도하는 중이다. 인간의 시각으로도, 여타 다른 생명의 시각으로도 보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 그것을 기계를 통해서나마 볼 수 있다는 것이 행운이다. 광학기계를 통해서 또 다른 매트릭스와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사진작업의 본연이 대상을 단순히 찍고 포착하는 목적에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대기와 빛과 투쟁과 화해를 무한적으로 거듭하는 변증적 서사이다. 그 서사 속에서 혹시나 영



혼의 본질이 드러날 수도 있다. 또 상황에 따라 무한대의 세계가 증험될 수도 있다. 이러한 시각을 드러나게 하고 싶은 희망에서 사진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나에게 이 세계는 엄청난 신비로 가득하다. 동시에 정신차릴 수도 없이 복잡하고 가공스럽다. 만물은 생명을 다해도 그 원소들은 없어지지 않는다. 흩어지더라도 우주의 구조와 함께 알 수 없는 인과의 생멸을 거듭한다는 것이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생멸의 연기는 우주 저 멀리까지 펼쳐질 것이다. 그래도 궁극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한 가지 진리가 있다. '사람다운 삶'의 실천이다.

나는 작업을 통하여 '사람다운 삶'을 지속하려 한다.

2017. 8. 이 강소 (Lee Kang-So)